

공원 빼앗은 '공룡마트'

'車山車海' 갈 곳 없는 생활체육

〈차산차해〉

월드컵 4강 신화의 성지(聖地)이자, 광주시민의 대표적 생활체육 공간인 광주 월드컵경기장이 쇼핑객의 주·정차장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중앙동 롯데마트 월드컵몰, 주말 저녁을 맞아 가족들과 쇼핑을 하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월드컵경기장 인근은 '차산차해'(車山車海)를 이뤘다.

롯데마트 내부의 지하 1층 주차장(332면)은 만차면치 오래였고, 야광등을 든 안내요원이 월드컵경기장 B-2주차장(217면)으로 차량을 인도했다. 하지만 B-2주차장 역시 빈자리가 마땅치 않다. 차를 찾기 위해 주차장 내부를 빙글빙글 돌던 운전자들은 자리가 나기만 하면 손발갈이 달려들었다. 일부 '얇체' 운전자들은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입구가 아닌 출구로 차를 몰고 들어가기도 했다. 무거운 짐을 든 쇼핑객들은 이리저리 차를 피해다녀야 했다.

마트 인근에 주차하는 것을 포기하고 멀찌감치 떨어진 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곳은 비포장인데다 멀게는 마트와 50여m 떨어진 곳이지만, 주차전장에 시달리느니 겠겠다는 속내인 듯했다.

월드컵경기장 일대가 쇼핑차량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산책도 크게 줄었다. 극심한 도로 정체에 따른 매연이 심각해졌다.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져 주민들이 체육공원 나들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경기장 인근이 혼잡을 겪고 있는 것은 롯데마트가 확보한 주

- ① 시민 주차장 독식, 빼앗긴 삶의 질
- ② 상권의 블랙홀...영세 상권 초토화
- ③ 고용효과 무색한 자금 유출
- ④ 허가 내 준 광주시, 대책은 없다

월드컵 4강 '성지' 시민들의 공간 롯데마트 쇼핑객 주정차로 '몸살'

차장이 너무 적기 때문. 월드컵몰은 지하 1층 지상 3층(영업면적 9천평) 규모에 패션몰과 할인점이 접목된 초대형 쇼핑몰이다. 패션몰에는 남·여 의류를 비롯해 스포츠 전

문매장 등 10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인근 중앙·금호동은 물론 남구 진월동 등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등 하루 평균 2만5천여명이 찾고 있다.

하지만 자체주차장은 지하 1층 주차장과 시가 일대인 B-2주차장 등 549면(법정주차면수 509면)에 불과하다.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5천500평 규모의 신세계 이마트가 1천421대(지하 2층·지상 3층)를 동시주차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양선(여·31·서구 중앙동)씨는 "하는 수 없이 비포장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먼지가 날리고 끔찍한 냄새를 맡고 있다"며 "소풍 한번 왔다가 세차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영(42·서구 금호동)씨는 "주말이나 가족들과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조깅을 해왔는데, 이젠 포기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자산인 생활체육공원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4일 오후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쇼핑객들의 차량이 가득 메우고 있다. 최근 경기장 인근에 롯데마트 월드컵몰이 개장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쇼핑객들은 경기장 공영주차장까지 독차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말 오후 국도 사고 '조심'

교통사망자 39% 차지...16~18시 가장 위험

치명적인 대형 교통사고는 주말 오후 4~6시경 일반국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건담 사망자 3명 이상 혹은 부상자 20명 이상을 낸 2005년 대형교통사고 115건의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대형교통사고 사망자 168명 중 39.3%가 일반국

도에서 목숨을 잃었고 25.0%는 고속도로(고속도로), 11.3%는 군도, 9.5%는 지방도, 8.9%는 시도, 4.2%는 특별시도(서울시장이 지정

하는 주요 도로)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가 16건에 21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오전 6~8시(11건에 20명 사망), 오후 2~4시(13건에 19명 사망)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요일별로는 일요일(22), 월요일(20건), 토요일(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차량은 대형 승합차량(버스 등)이 41.7%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경찰, 사이버 범죄 집중 단속



'악플'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3개월간 명예훼손·불법선거운동·범죄 모의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악플(악의적인 댓글) ▲사이버 폭력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전자상거래 사기 ▲도박·음란사이트 운영 ▲스팸발송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범죄모의 등이다.

경찰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지

하는 사업자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관련 범죄는 7만545건으로 사기가 37.8%로 가장 많았고 ▲해킹·바이러스 유포(22.7%) ▲명예훼손 및 비방 등 사이버 폭력(13.4%) ▲불법사이트 운영(10.4%) 등 순이었다. 특히 '악플' 등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은 ▲2004년 1천850명 ▲2005년 3천509명 ▲2006년 3천95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못말리는 '기름 도둑'

잠복 중인 형사반장 승용차에서 휘발유 훔치던 30대 현장 '덜미'

'기름 도둑'을 잡기 위해 야간 잠복 중인 형사반장의 승용차에서 휘발유를 빼내던 30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광주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 근무하는 H(38)씨는 4일 새벽 6시경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주차해 있는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 '작업'에 들어갔다. 평소 익힌 능숙한 솜씨로 지렛대를 이용해 뒷바퀴를 들어올린 뒤, 차체 아래에 있는 기름통 밸브를 열고 휘발유를 빼내 통에 받았다. 하지만 갑자기 역센 손이 훔씨의 손에 수감시 채웠다.

H씨를 잡은 사람은 이 차에 타고 있던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 수사 1팀장 차원환(42) 경위. 차 팀장은 전날 밤 10시부터 차 안에서 홀로 잠복근무 중이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농산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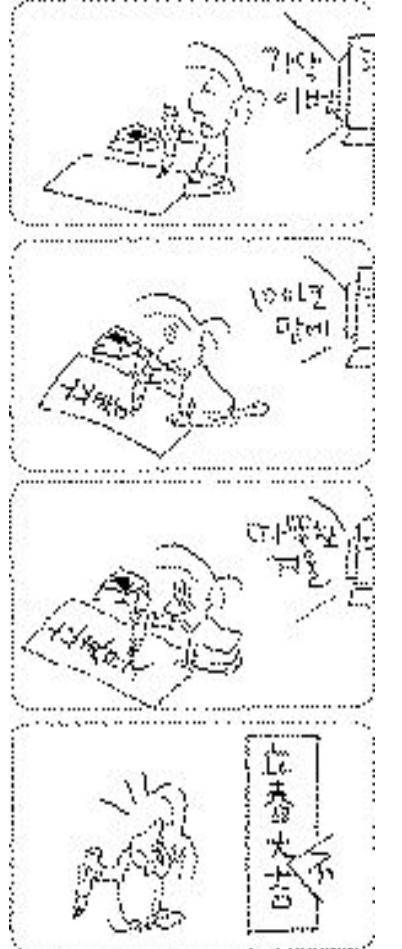
기름 도둑을 잡기 위해 야간 잠복 중인 형사반장의 승용차에서 휘발유를 빼내던 30대 현장을 덜미를 잡혔다.

매시장 주변에서 자동차·트럭 기름을 빼가는 도둑이 있다는 신고가 3~4건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름 도둑'은 유리창에 햇빛가리개를 붙여놓고, 차 팀장이 검은 옷을 입은 채 앉아 있어 빈 차로 착각했던 것이었다.

차 팀장은 "공업사에서 받은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다고 도둑질을 했다"며 "H씨가 붙고 승용차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훔친 시간 4만6천원 상당의 20kg들이 양과 2만도 발견,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11-1번지
수원신도시 피오레
문의: 062-367-9000

오리 2,500여마리 몰타

지난 3일 밤 11시49분경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김모(51)씨의 오리농장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 사육장 1동(270㎡)과 오리 2천500여마리가 불에 탔다. /행평=박영진기자

총장로 일대 활개 소매치기 '덜미'

○변화가인 광주시 동구 총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활개를 치던 소매치기범이 경찰에 덜미.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3·전과 12범)씨는 지난해 9월27일 밤 10시40분경 광주시 동구 총장로 밀리오 앞 버스승강장에서 K(여·23)씨의 핸드백을 몰래 열고 지갑을 가져가는 등 모두 11회에 걸쳐 65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4일 붙잡혔다는 것.

○김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금방에서 10만원짜리 금목걸이(시가 70여만원 상당)를 샀다가 CCTV에 얼굴이 찍혀 붙잡혔다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진도출신 대기업 임원

무안서 숨진 채 발견

4일 새벽 3시40분경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톨마리 해수욕장 앞에서 해운업체 H사 임원 최모(52·서울 광진구)씨가 나무에 밧줄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행인 이모(2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현장에 '가족들에게 집만 남기고 먼저 가게 돼 너무나 미안하다'는 내용의 짧은 유서를 남겼다.

진도가 고향인 최씨는 이 지역에서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뒤 H사상에 입사, 지난 2003년 부장에서 상무보(자재부 부서장)에 승진했으며, 최근 해외지사 지원실장으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혼란스러워하는 편인함, 소리없는 편인함
OPEN
이제 시몬스침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몬스침대, 건강한 수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www.simons.com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평사총YEM사영어학원 조성훈 교수 친필 추천!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990점 만점반, 800점 목표반, 660점 목표반, 초등중학생반
www.yem.com
합격의 기쁨을 30년 전에 신원호로 실소를 비현실적습니다
예술의 거리 중영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담구 ☎(082)222-6253
동아외국어학원